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도덕적 성찰-노동윤리를 중심으로

이승무(LG환경연구원)

## 1. 문제의식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기업윤리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노동윤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도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노동은 하지 않고 자기 몫만을 많이 챙기려고 한다는 데서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차원에서 노동윤리를 언급하는 경우밖에는 없다.

이 글에서는 경제적인 부정부패와 기업윤리의 문제, 더 깊이는 사회에 만연한 인간성 황폐화가 근본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진지한 태도, 올바른 노동관이 부재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인류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발견해 온 사회적 진리 중에서 노동에 관한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무시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먼저 노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의 확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말하는 노동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기능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람과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본연의 존재 형태의 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신분상으로 고용자이든 고용주이든 자영업자이든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 2. 테제

-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에 앞서 인간과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창출해 내는 활동일 뿐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며, 그 인간이 사회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통로가 된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표현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노동하지 않는 삶과 지나치게 신체를酷使하는 노동은 그 사람의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물질적, 정신적 부작용과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사회의 도덕적 타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 노동이 돈벌이를 하는 수단 외에 노동하는 사람의 건강과 자기계발, 자기표현, 사회봉사, 사회적 관계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윤리를 중시하는 주장이다.
-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기 일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통해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독자적인 주체의식을 키워오지 못한 채 단지 힘들고 피곤하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체념을 가지고 일해 오면서 노동자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 나갈 여유가 없었다.
- 정직한 노동에 의한 사회적 인정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등 관계 형성에 의해 사회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정직한 노동의 윤리는 교육에서조차 실종되어 가고 있다.

- 그 근본 원인은 현재의 경제구조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노동자에게 직무기피 요인을 제공하고 또 건강과 자기계발과 자기표현의 기회,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며 단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업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노동과 직업생활의 윤리가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는 물론 지식인, 종교인에 의해서조차 제대로 발전되거나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 단지, 19세기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가 노동윤리의 전부가 되다시피 하여 21세기에 필요한 노동윤리라기보다는 영리추구의 목적을 위해 금욕적이고 청교도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전형적인 성공한 시민계층의 직업윤리가 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쳐졌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가 노동자 신분으로 사회의 주체적인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정치의식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탄압과 억압을 받게 되면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자연의 소재를 다루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윤리는 완전히 실종된다.
- 이에 대한 책임은 가정, 학교, 교회, 국가 모두가 져야 한다. 가정은 전통적인 신분차별 의식에 따라 자녀에게 정직한 노동의 기쁨을 가르치지 못했고 힘든 육체노동보다는 머리를 써서 사는 직업을 갖도록 유도했다. 사회의 윤리의식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학교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전통적인 윤리를 그대로 답습했다. 더구나 한국 교회는 정직한 노동자가 될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지혜롭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현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어른 대접을 받아 왔다.

### 3. 한국 경제의 위기

- 한국경제의 위기는 건강한 노동윤리의 실종에서 비롯된다.
- 지대추구 행위에 의한 불로소득이 공공연한 것이 되고, 직업활동이 지나치게 높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 되어 노동자를 지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불건전한 유흥산업의 변창 신체 약화에 의한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주말의 휴식을 위해 1주일을 마지못해 괴로운 마음으로 일하며 주말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의 여가활동에 많은 돈을 사용한다.
- 직장인이 자부심, 직업의식과 주체성을 갖지 못함에 따라 표피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조직의 경제적 거래에 익숙하게 되며 단지 직장인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노동자의 주된 관심이 작장 밖에 있게 되는 나머지, 자발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의해 사업장에서 자생적으로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진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하여 이식하는 데서 많은 부가 유출될 뿐 아니라 외국의 생산시스템과 작업방식에 종속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은 벽에 부딪힌다.

### 4.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 지금의 노동윤리 실종에 책임이 있는 가정, 학교, 교회, 국가기구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윤리 회복을 통한 바른 인간상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금은 19세기에 막스 베버가 발굴하여 소개한 근대사회의 형성에 기여한 천부적인 직업관뿐 아니라 20세기에 세계가 겪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및 체제경쟁과 생태문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사회의 성숙한 노동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 일의 경시와 일중독 모두를 넘어선 노동에 대한 바른 태도, 인체의 건강 및 지구생태계의 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노동,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방식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노동자, 농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때 그리고 자녀에게도 직업생활의 좋은 모범이 될 때 노동윤리의 회복이 완성되고 경제는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 5. 노동윤리 회복을 위한 기독교의 사명

- 기독교 신학과 교회는 노동자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포함한 가르침을 노동자, 농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사회 전체의 건강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다는 성서적인 노동관을 신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회변혁 운동진영과 사회과학도들은 노동윤리를 확립하고 노동자가 노동의 참 의미를 발견하며 자존감을 갖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와 인간성 회복에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를 규명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노동자 운동, 환경운동 진영과도 그런 관점에서 연대하여야 한다.
- 이러한 노동윤리의 회복이 가능할 때 우리 사회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회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